

2021. 3. 15



▲ 통신/미디어

Analyst 정지수

02. 6454-4863

jisoo.jeong@meritz.co.kr

Overweight

통신서비스

미국 통신사 Investor Day 요약

- ✓ 미국 통신 3사 10~12일간 Investor Day 개최 후 5G 투자 및 사업 전략 공유
- ✓ Verizon은 5G 수익화, AT&T는 HBO Max(OTT), T-Mobile은 합병 시너지에 집중
- ✓ Verizon과 AT&T는 C-Band 투자에 각각 100억달러, 60~80억달러 지출 계획
- ✓ 연초 시장 우려와 달리 미국 이통사 2021년 CAPEX는 전년 대비 대폭 상향 전망
- ✓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에 기지국 합체를 공급하는 서진시스템이 가장 큰 수혜 전망

미국 통신 3사 Investor Day 개최

미국 통신 3사 Verizon, T-Mobile, AT&T는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간 Analyst & Investor Day를 개최하고 최근 종료된 C-Band 주파수 경매 결과와 5G 사업 전개 방향, 재무 가이드선 등을 공개했다. Auction 107으로 불리는 C-Band 주파수 경매는 3.5~4.2GHz 중대역 주파수 280MHz(\$81.2B) 대역폭을 Verizon이 161MHz(\$45.5B), AT&T가 80MHz(\$23.4B), T-Mobile이 27MHz(\$9.3B)를 각각 할당 받았다.

각 사의 지향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컨퍼런스

Verizon은 향후 C-Band를 활용한 5G 인프라 구축 계획과 수익화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. Verizon은 2020년 9% 수준이던 5G 약정 가입자를 2023년까지 55%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며, 2021년 +2%, 2022~2023년 +3%, 2024년 +4% 이상의 서비스 매출 성장 가이드선을 제시했다. AT&T는 통신보다는 HBO Max/HBO의 상향된 가입자 목표를 제시하고, 글로벌 출시 계획에 집중했다. T-Mobile은 Sprint 인수를 통해 연간 25%(\$7.5B)의 비용 효율화를 강조하며 미국 내 무선 점유율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. Investor Day 종료 후 Verizon 주가는 -2.8% 하락, AT&T는 +0.9% 상승, T-Mobile은 -1.1% 하락했다. 최근 미국 내 Disney(DIS), ViacomCBS(VIAC), Discovery(DISCA) 등 콘텐츠/플랫폼 업종 주가 강세처럼 통신 본업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결과로 해석된다.

5G 인프라 투자 계획 및 시사점

Verizon은 C-Band 투자를 위해 향후 3년간 100억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며, 이는 2021년 CAPEX 가이드선부터 추가로 반영된다. AT&T는 C-Band 80MHz 중 40MHz 대역폭 투자를 올해 시작하며, 60~80억달러 금액 대부분 2022~2024년 반영될 전망이다. T-Mobile은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으나, Macro Site 기준으로 2021년 7~8,000개, 2022년 35,0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.

연초 시장 우려와 달리 미국 통신사들의 2021년 CAPEX는 전년 대비 대폭 상승할 전망이며, 국내에서는 Verizon 메인 벤더인 삼성전자에 기지국 합체를 공급하는 서진시스템(178320)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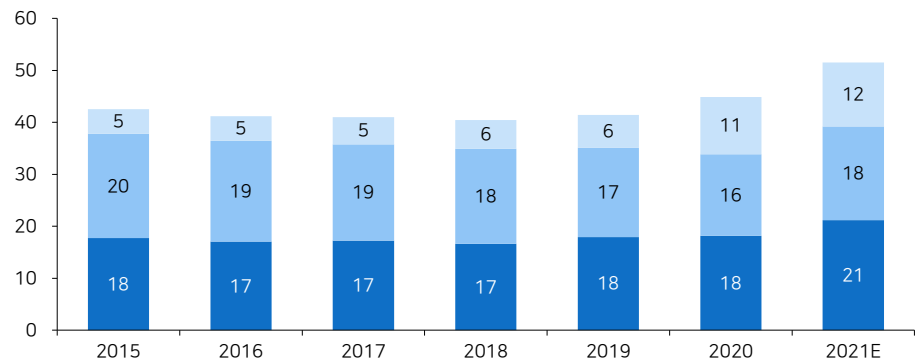
표1 미국 C-Band 주파수 경매(Auction 107) 결과

(백만달러)	전체 금액	청산 금액	실제 집행 금액	획득 주파수(MHz)
T-Mobile	10,666	1,330	9,336	27
AT&T	27,695	4,288	23,407	80
Verizon	53,364	7,909	45,455	161
Dish	3	0	3	0
Comcast	0	0	0	0
Charter	0	0	0	0
Others	3,391	423	2,968	13
Total	95,119	13,950	81,169	280

자료: 언론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 미국 통신 3사 CAPEX 추이 및 전망

(십억달러) T-mobile AT&T Verizon



자료: 각 사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주: AT&T 2015~2021년 CAPEX에서 DirecTV 부문은 제외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

투자등급 관련사항 (2019년 9월 16일부터 기준 변경 시행)

기업	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	
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종가대비 3등급	Buy	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+20% 이상
	Hold	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-20% 이상 ~ +20% 미만
	Sell	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종가대비 -20% 미만
산업	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	
추천기준일 시장지수대비 3등급	Overweight (비중확대)	
	Neutral (중립)	
	Underweight (비중축소)	

투자의견 비율

투자의견	비율
매수	78.9%
중립	21.1%
매도	0.0%
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	